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3. 8. 18(금) 16:30
○ 장 소 : 구로구의회 6층 회의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16시35분 개의)

○위원장 안OO

지금부터 2023년 3년도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성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OO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총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출석한 위원님들은 일곱 분으로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OO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3년도 구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안 2차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 기준과 관련 규정 및 출장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난주에 거의 다 모든 내용은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아직 결정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이렇게 자료로 온 거 보니까 우리 혹시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정책지원팀장 박OO

저번 회의 때 4개 기관 방문 중에 1개 기관이 확정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배포해 드렸는데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 연구소에 대해서 설명은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월 18일 10시에 확정이 됐고요. 그때는 총괄 교수님이 미팅하시기로 했는데 그분이 일정이 안 되셔서, 이번에는 그 연구소 총괄하시는 학장님이 저희를 만나보겠다고 직접 나서셨어요. 이분이 나선 이유는 본인도 한국에 스마트시티를 다녀왔다, 관심이 많다, 얘기하시고 저희 구로디지털단지 관심이 있으니 구의 스마트도시과 정책에 대해서 브리핑을 충실히 해달라, 우리도 충실히 하겠다, 의견을 주셨고요. 필요하면 지속적인 교류도 좀 검토해 보자. 이렇게까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추가로 두 개의 자료를 좀 깔아드렸습니다. 제가 이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물론 2019년도 회의록을 보면서 여기 게시지만 송OO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번에는 자료를 배포를 안 해드린 이유는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외부에 이렇게 공개할 자료는 아닌데 지난번에도 아직도 좀 못 믿으시는 부분이 많고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오픈을 하는 게 맞다 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7월 25일날 준비한 것에 고민하다 저희 담당하고 우리도 운영 매뉴얼을 하나 좀 만들어보자. 경상도 쪽에서 운영 매뉴얼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해서 운영 매뉴얼을 만들었고요. 다른 건 자료를 보시고 3페이지에 5단계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사항이라고 쪽 보시면 이것을 저희가 개선해서 올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8월 4일날 해외비교시찰 추진 계획을, 저희가 이것도 전에는 세우지 않았던 계획인데 저랑 담당이 고민해서 세운 계획입니다, 처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 3페이지에 1차 회의 때부터 의원님들 전체 수요조사부터 2차 회의, 또 다시 수요조사, 3차 회의 방문 국가 선정, 간담회 4차 회의도 하고 출장사 선정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고 집행부 협력기관 의견수렴도 실시하고 사전 배포 자료도 작성하고 과제도 발굴하고 이런 자료들이 쪽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2개를 처음 마련했어요. 올해는 개선의 의지를 좀 계획에 맞춰서 차근차근 준비하려고 해서 이걸 좀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외유성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개선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바뀌기는 쉽지 않죠. 저도 제가 의회에서 1~2년 근무하다 떠날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이제 의회에 아예 소속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맡는 동안은 반드시 개선할 거고요. 차근차근, 더 나은 방향으로. 그리고 기관 방문도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저희 담당하고 저하고 또 의원님들 같이 노력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OO

네, 우리 팀장님...

○송OO위원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안OO

네. 그러세요.

○송00위원

그렇지 않아도 팀장님한테 또 새로운 자료가 나와가지고 설명을 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 설명해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난번에 지적 사항 중에 하나였던 협의가 안 됐던 기관에 대해서 학장으로부터 막 이렇게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다, 이렇게 갑자기 전혀 180도 다른 자료가 나왔는데 그 학장님으로부터 받은 메일이라든가 그 기관에서 받은 자료 제시를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책지원팀장 박00

학장님으로부터 저희가 직접 받지 않고요. 저희가 출장사를 선정했잖아요. 그래서 출장사에서 최종 확정된 메일은 저희가 받았어요. 받았고 그 내용은

○송00위원

그러니까 출장사가 받은 메일이라도 공개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이, 자료가 여러 개다 보니까 지금 혼란이 오는 것 같은데 그 일정 중에는 오늘 주신 자료에는 지금 9월 15일날 게트라이데를 또 가는 걸로 들어가 있어요.

○정책지원팀장 박00

어디예요, 오늘 자료예요?

○송00위원

오늘 나눠주신 자료에 이 자료요.

○정책지원팀장 박00

이거는 예전 자료예요. 거기 날짜 보시면 그때 지난 회의 때 최종 일정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8월 4일날 결재받은 거고요. 이거는 7월 25일날.

○송00위원

근데 오늘 나눠주신 자료인데 이중에서 바뀐 게 있으면 뭔가...

○정책지원팀장 박00

그거는 그때 결재받은 자료를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증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의지를, 의회사무국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그때 자료를 공개를 해드린 겁니다. 저희도 고민하다가.

○송00위원

근데 자료가 계속 이렇게 저렇게 다른 자료가 나오니까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정책지원팀장 박OO

위원님 이거는 옛날 자료예요. 그 날짜.

○송OO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여기에 또 제가 관광지라고 지적했던 게트라이테가 또 빠졌다가 들어가 있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지난번에 지적드렸던 사항 중에는 수행, 수행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러네요. 같이 가는 직원의 수가 너무 많다, 과거 사례의 비율로 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변경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없으신 건가요?

○정책지원팀장 박OO

그거는 여기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 의견을 듣고.

○송OO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변경이 불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쭙본 거예요.

○정책지원팀장 박OO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송OO위원

그렇죠. 노골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적은 없으셨는데 변경 가능하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과거에도 계속 이 인원이 갔다, 이 인원이 필요하다,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하셔가지고 변경할 의지가 없으신가? 이런 생각을 제가 받았었죠.

○정책지원팀장 박OO

위원님!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께 정말 죄송한데요. 결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송OO 위원님 처음 뵙는 거 아니고요. 사전에 미리 전화도 주셨고 의장님실에서 미팅도 했고 저 굉장히 상처 많이 받았어요. 송 위원님 말투와 그말 속에 있는 그 뜻 굉장히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근데 꼭 참았거든요. 근데 지난 회의 때도 이게 심사장인지 심문위원회인지 너무 너무 속상했어요.

○송OO위원

아니 근데 팀장님 위원회가 심의를 하는데 내가 지금 위원이 질문하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적합한가요?

○정책지원팀장 박OO

아니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좀 말씀을, 저희도 감정이 있잖아요. 좀 부드럽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당혹스럽습니다.

○송OO위원

아니 지난번에 있었던 사실 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부드럽게 얘기를 해요.

○정책지원팀장 박OO

아니 위원님은 말씀하실 때 너무 이렇게 코너로 모세요. 고양이 쥐 몰듯이 막 코너로 몰면 저희는 어떻게 답변합니까?

○송OO위원

저는 고양이로서 쥐를 몰았던 적은 없고요.

○정책지원팀장 박OO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너무 이제 고통스럽습니다. 정신적으로.

○송OO위원

그건 팀장이, 잠깐만요. 그건 팀장님이 팀장으로서 자리에서 감당해야 되는 무게예요.

○정책지원팀장 박OO

위원님, 제가 부탁드립니다 거예요. 좀 언어를, 저희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좀 부드럽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송OO위원

저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언어 중에 최대한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팩트 가지고 체크를 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는 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부담스럽다거나 아니면 뭐 상처받았다, 이런 말씀은 부적합하다, 팀장으로서. 저는 그렇게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팀장님은 어쨌든 심의를 도와주시려고 여기에 와 있는 담당 공무원이시니까 저희가 심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다든가 질문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오히려 저는,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저는 오히려 팀장님의 태도에 제가 실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획이 명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그걸 인정하고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수정할까를 어떻게 이걸 개선할까, 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지금 담당 공무원으로서 팩트와 안 맞는 얘기

들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느낌으로는.

○정책지원팀장 박OO

저도 좀 말씀드릴게요.

○송OO위원

아니요. 팬찮아요. 이제 그만하시죠. 다른 분들의 심의에 방해가 되는 건 싫으니까요. 팀장님 말씀은 여기서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팀장님 얘기 들으실 건가요?

○위원장 안OO

아니 근데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억울한 면도 있다면 속 시원하게 얘기를 듣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팀장님 혹시 서운한 점이 있다면 속 시원하게 한 2분 동안만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책지원팀장 박OO

저희 물론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희 편은 아니겠죠. 저 알아요. 그래서 지난 3시간 제가 느끼기로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3시간. 물론 날카롭게 질문하시지만 타당하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개선을 추진한 거고요.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람이 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3시간 안에 솔직히 엄청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 일이니까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또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좀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가 부탁드립니다.

○송OO위원

말씀 다 하신 건가요? 팀장님이 글썽 한 30년 공무원 생활을 하셨을 텐데 이런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면서 내가 뭐 한 3시간 동안 이런 회의도 처음이고 뭐 이런 상처받기도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만큼 구로구 행정이 잘못됐었다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대로 된 심의를 받아보신 적이 없는 거죠.

○위원장 안OO

부위원장님! 여기에서 일단락을 하고요. 왜냐하면 팀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부위원장님도 전부 다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그 부분은 여기에서 끝내는 걸로 하고요.

○김OO위원

질문하시기 전에 일단은 그냥 그 팩트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직원에 대한 부분을 조정이 가능한지 그 답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듣고 싶었으니까.

○송00위원

제가 추가로 답하시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직원이 6명으로 편성돼 있는데 지금 수행 인원 중에 사무국장님이 들어가 있는 것은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무국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가신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신 적이 있다면,

○정책지원팀장 박00

한 번 가셨습니다.

○송00위원

한 번이요? 몇 연도인가요?

○정책지원팀장 박00

14년도로 제가.

○송00위원

2014년도요?

○정책지원팀장 박00

네.

○송00위원

한 번 있었던 게 다행이네요, 팀장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는 부적합하고 다른 직원들한테 오히려 부담이 될 뿐이다 그리고 비율적으로도 안 맞는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적정 직원 수는 기존에 갔던 규모로 봤을 때는 4명을 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율이라는 게 나오니까요. 인원 조정에 대해서 팀장님이 가능하시다고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정책지원팀장 박00

국장님이 가신 적은 말씀드리는 대로 한 번 있었고요. 인원을 저희가 계속 줄여오기는 했어요. 지난번에는 전문위원님이 가시든지 5급 상당이 함께 가시든지 총괄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무국장님이 과장님 대신해서 총괄로 가시기로 하셨는데요. 저희가 국장님 한 분 정도는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을 빼시면 사실 저희가 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적정 인원이 있거든요. 한 분 정도는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OO

이미 여기에 그 계획안에 올라올 때 명단이 전부 다 올라와가지고 다 알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미 거기에 대상자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 이러면 그분의 마음도 조금은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어 올해는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을 아예 이렇게 조금 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갔으면 저는 어떻겠느냐, 라고 제안을 해봅니다.

○송OO위원

위원장님 어쨌든 개인 의견이신데요. 제가 그냥 현실을 말씀드리면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사실로는 직원 중에 여기 가기를 좋아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오히려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당신은 안 가도 됩니다.” 하면 매우 기뻐할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위원장 안OO

글쎄요, 그거는 제가 뭐 그분들의 이야기를 모르니까.

○송OO위원

저는 아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안OO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 알 수가 있는 건지 그것은……

○송OO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지금 세 차례나, 관련 출장 갈 때마다 세 차례나 제가 두 차례 심의위원으로 참여했고 나머지는 잘못된 걸 조사하기 위해서 제가 관련 구의원이나 담당 직원들 인터뷰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난번에 팀장님의 태도에서도 나타났지만 솔직히 안 가도, 팀장님 마이크 꺼놓고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안 가도 그만이죠. 담당 직원들은, 그리고 오히려 이거를 변경해서, 지난번에 사실은 합리적인 제안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노골적으로 까놓고 다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난번 회의 이후로도 그러면 왜 이 의원들이 안 가는데 대해서 다시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알고 있는 의원들하고 통화를 했고 그분들은 가시고 싶었던 곳이 달랐어요. 달랐고 심지어 본인들이 원하는 곳을 나눠서 가자고 제안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개선했다고 팀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개선 과정들이 실질적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사가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밀실 야합에 의해서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가고 싶지 않은 지역

으로 추진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안 가겠다, 라고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위원장 안OO

근데 그게 밀실 야합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여기 위원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밀실 야합인지 밀실 야합이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송OO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 판단은 각자 하실 거고요.

○위원장 안OO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여기에 다섯 분이 못 가신다고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여건이 조금 되어 가지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기 여건이 맞질 않아서 그랬었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했을 때 여건이 되신다면, 가실 수 있다면 여기에 더 참석을 해서 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김OO위원

저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저희가 심사를 하러 와서 그 의원님들 전원 가는 거 안 가는 거, 야합인 거 아닌 거, 이런 것을 왜 얘기를 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희는 올라온 이 서류에 대해서만 공정성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 구의원님들 다 가지고 안 가지고, 거기에서 패가 나누어지고 안 나누어지고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심사위원실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송OO위원

맞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야기가 나온 게 아까 팀장님이 개선하셨다고 하는 수요조사나 상임위원회별 기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개선된 사항은 여전히 없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하자면 1시간도 얘기하는데 오늘 어쨌든 두 번째 회의이고 빨리 끝내기를 기대하고 앉아 계신 것도 같아서 지금 팀장님이, 어쨌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지난번 회의 때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수정안을 제시하려고 했었어요. 의원들이 원래 원했던 것이 일부 의원들은 유럽으로 가자는 의원이 있었고 일부 의원들은 제가 알기로

는 호주로 가자는 의원들이 있었고 사실 저희가 규정상 의원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돼서 사무국에서 그것을 서포트를 제대로 했더라면 위원회별로도 갈 수 있고 의원들을 나눠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그냥 유럽에 그냥 가자, 라는 안으로 만들어져 버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원들의 그런 의견이 있었으니까 지금이라도 계획을 변경해서 이렇게 나눠서 가도록 할 수 있지 않냐, 라고 했을 때 제 기억에는 팀장님이 부정적인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가지고만 심의를 한다면 저는 어쨌든 부정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새로운 자료에 대해서 궁금한 위원님 있으면 팀장님한테 질의하시고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지금 드러난 자료를 가지고 의견들을 한 번씩 얘기하고 그다음에 표결을 하는 걸로 정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안OO

위원장으로서 생각은 될 수 있으면 표결을 하지 않고 좋은 의견을 모아서 의결을 그냥 전체가 다 할 수 있었으면 그게 좋겠습니다. 표결하는 것보다는, 표결은 가장 최악의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서로의 의견을 조금 조율을 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개선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다면 그 개선 방향을 가지고서 확정을 해서 우리가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OO위원

위원장님! 표결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십니까. 규정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OO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 얘기는 표결은 제일 최후의 방법이고 표결에.....

○송OO위원

표결은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규정을 한번 봐주십시오. 위원장님! 제 얘기에는 좀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좀 단호하게 말씀드려서 저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근데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거 회의록이 지난번에, 사무국에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지난번 회의록이 임의대로 짜깁기가 되고 중요한 말들이 빠져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회의를 길게 했지만 중요한 얘기들 그대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이번에 만약에 제대로 회의록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분명히 제가 문제 삼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님께서도 그것이 다 기록으로 남는다, 라는 걸 인식하고 저는 발언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도 마찬가지로요. 규정에 따라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정책지원팀장 박OO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회의록은 오늘 일단 공개를 했고요. 회의록에 짜깁기하거나 왜곡되게 한 건 없습니다.

○송OO위원

그것을 팀장님은 모르시죠. 참석한 제가 알고 있죠. 제가 했던 중요한 발언들, 그 당시에 표결에 참여했던 사람의 중요한 발언이 빠져 있으니까요. 그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정책지원팀장 박OO

위원님,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송OO위원

이 회의록 문제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자고요. 결론 낼까요? 여기서. 뭐가 빠져 있는지?

○정책지원팀장 박OO

네. 말씀해 주세요.

○송OO위원

녹음 갖고 계세요?

○정책지원팀장 박OO

녹취록 있습니다.

○송OO위원위원

녹취록 말고 녹음을 갖고 계시냐고요? 원본. 2019년에 했던 회의예요.

○정책지원팀장 박OO

2019년 말고 지금 회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OO위원

저는 2019년 얘기한 거잖아요. 2019년 회의록이.

○정책지원팀장 박OO

지난 회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송00위원

얘기할 때 잘 들어주세요. 팀장님.

○정책지원팀장 박00

네.

○송00위원

2019년 회의록이 짜집기 됐고 중요한 발언들이 빠져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회의록은 제대로 작성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어쨌든 본인의 발언이 기록에 남는다, 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발언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00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생각이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책지원팀장 박00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발언 한번 할게요. 어차피 심사받는 건 의회사 무국이잖아요. 준비한 건 저희가 했고, 마지막 얘기를 좀 드려도 될 것 같아서 추가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난 회의 때 위원님께서 어떤 개별 특정 의원이 이거를 다 기획했다, 이런 말씀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은 선출직이 구청장님 한 분이세요. 여기는 16분이 다 선출직 구의원입니다. 다 주민 대표고요. 주민한테 선택받은 자부심이 강하신 분들이예요. 자기 결정권도 강하고 자부심도 강하고. 그런데 누구 한 사람 특정 개인의 어떤 기획에 의해서 자기 의사에 반해서,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심사를 지금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 말씀을 안 드리면 그냥 저희 의원님들이 폄하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송00위원

네, 팀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저와 관련해서 언급하셨으니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민 대표로서 구로구의회에 있고 이 구로구의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1년 예산 30억 원을 쓰고 있지만 그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설득 당하고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구로구의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뻔한데 그거를 지금 유치원생도 아니고 여기 지금 구로구의회나 구로구 정치인들에 대한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위원들 앞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팀장님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얘기에요. 저는 팀장님 믿어주고 싶은데 어쨌든 팀장님이 회의록에 좋은 발언을 하신 걸로 기록 남기기 위해서 말씀하셨다고 제가 이해하고요.

○정책지원팀장 박OO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그런 의도를 갖고, 제 의도를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 내부자료를 공개해 드린 이유는 19년도에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고자 차근차근 준비한 거를 여기에 담아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정성을.

○송OO위원

그러니까 그게 개선이 안 된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위원들이 하시겠죠. 이제 하실 말씀 다 하신 거죠?

○정책지원팀장 박OO

네. 이상입니다.

○송OO위원

아까도 건의드렸지만 위원 분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말씀하실 분 한 분씩 얘기 듣고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OO위원

팀장님, 혹시 오늘 주신 이 운영 매뉴얼 단계에 있는 개선 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요, 이미 결정이 난 건가요? 아니면 안으로만 아직은.....

○정책지원팀장 박OO

결재 받았잖아요, 의장님까지.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추진해 가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추진한 게 현장 시찰 자료 이미 공유했고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미리. 그다음에 상임위원으로 집행부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 저희가 했어요. 지금 받고 있고요. 이것도 전에는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심사할 때 오늘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잖아요. 그동안 의원님 참석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운영위원장님 말고 계시니까 책임감을 갖고 참석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저희가 전문가 초빙해서 세미나 개최할 거예요. 그때 집행부하고 의원님들, 사무국 직원 다 같이 세미나 듣고 거기서 질의응답하고 개선할 거고요. 다 끝나고 나면 결과 보고드릴 거고요. 5단계 본회의에서 실시간 중계되거든요. 의원님들 결과 보고할 거고요. 결과를 구로구 정책 제안으로 정식으로 집행부에 던질 겁니다. 제출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저희가 실적 관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지를 담아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00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지원팀장 박00

이상입니다.

○황00위원

저는 개선 의견을 보고 오히려 19년 심사 시에 개선 의견 제안된 4가지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가능한 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안 되었고 두 가지는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서 지금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았는데 일단 첫 번째, 30일에서 90일로 조정, 그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죠. 어쨌든 안 되었습니다. 당장 코앞이고요.

그다음에 의원 주도하에 출장계획서 작성, 의원 주도하인지 여전히 그 주체성에 의문이 남는데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의 일에 대해서 심의를 받는다고까지 얘기를 하시는지 저희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의가 아니라 의원 주도하에 출장계획서 작성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을지 심사하는 단계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의회사무국의 심사를 받는 거다, 우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안 좋아할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아닙니다. 저희는 오히려 직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고, 그런데 우리 세금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가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게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심사위원회의 역할이고 그리고 이 출장 자체가 어쨌든 지난번에 개선 의견 드린 것이 의원 주도하에서 출장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했는데 그 주도하신 분이 참석을 안 하셨다, 오히려 가지 않으시는 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참석하셨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얘기된 부분이고요. 그분은 여전히 오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총 4개 중에 2개가

개선이 되었는지 지금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데 2개가 안 되었고 2개는 아직 지금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표결은 최악의 경우에 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게 최악일 수 있는지? 일단 물론 규정 자체에도 표결로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제안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표결이 최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안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목소리를 제거하는 시도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악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심지어 대법원 이런 데 가서도 소수 의견, 대법관에 대해서 의견까지 나오잖아요. 소수 의견이 그렇게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다루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인데 표결이 최악의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정책지원팀장 박OO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제가 답변 잠깐 짧게 드리겠습니다.

3번은 그때 19년도에 송 위원님이 참석하셨지만 그때 의견 주신 것 중에 주요 사항을 제가 이렇게 나열한 거고요. 여기서 이거를 한 번에 다 바꾸면 정말 좋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개선한 게 출장 시기는 다음 번에 할 때는 좀 당겨야겠다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 보고서 심사위원회에 보고하는 거는 본회의에 제출하는 거는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의원 주도하에 출장계획서 작성을 심사위원회에 의원이 참석해서 하시는 것은 운영위원장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의논드리고 일정을 짜고 같이 의논한 거고요. 주민과 함께 해외 비교시찰 성과 보고는 저희가 이번에 전자시스템 도입하면서 본회의가 실시간 중계가 됩니다. 그래서 본회의 때 처음으로 의원님이 성과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송OO위원

지금 팀장님 코멘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난번에 여기 제가 의견 냈던 걸 정리를 해 주셨는데 국외출장 계획서 제출 좀 일찍 당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팀장님 지난번 회의 때 말씀은 문제없다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그랬고 두 번째 의원 주도하에 출장계획서 작성되지 않았고요. 이번 출장도. 어쨌든 운영위원장님이 참석하신 게 그나마, 가지 않으시는 운영위원장님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신 게 그나마 구로구의회에서 책임을 조금 가졌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주민과 함께하는 해외 비교시찰 성과보고회를 개최해야 된다, 라는 거는 주민 앞에서 발표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으라는 의미에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이지 이것이 회의 때 영상으로 송출된다고 해서 주민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갔다 와서의 성과를 주민들한테 직접 보고하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무엇을 보고 왔는지 질문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떠한 구로구를 위해서 성과를 만들어낼 건지 어떤 사업을 같이 해서 만들어낼 건지 그런 것들을 의논하는 자리를 만들라는 건데 팀장님은 아직도 지금 이것을……

○정책지원팀장 박OO

아니, 송 위원님!

○송OO위원

곡해하고 있다.

○정책지원팀장 박OO

그건 아니고요. 송 위원님 말씀 이해했고요.

○송OO위원

어떻게 이것을 방송에 송출된다는 걸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책지원팀장 박OO

대체한다고 저는 말씀 안 드렸고요.

○송OO위원

이것도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려고 하는 의지를 안 보이고 계신 거죠. 의회사무국에서는.

○정책지원팀장 박OO

제가 서두에 말씀……

○송OO위원

일단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래요. 모르겠어요. 구의회가 독

립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계속 계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얼마나 의원들을 서포트해서 변화를 이끌어내실지는 앞으로 팀장님을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공무출장에 관련된 조례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것들을 고칠 게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하고 관심 있는 어떤 의원님이든 아니면 팀장님이든 요청하시면 저는 조례 개정 작업도 도와드릴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거는 개선이 돼야 되는데 과연 저희가 이 정도를 가지고 그냥 이번에도 그러면 좀 개선안 제안 의견을 드리는 거 하고 심의위원회가. 지난번 2019년처럼 조건부 승인이든 뭐든 해가지고 보내드리면 의원들이 과연 변화할 것인가, 사무국이 변화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부결시켜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일부 의원들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마음이 약해서 보내주자, 이렇게 해서 찬성표를 던지신 분들이 있어요. 녹취록에는 안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짜깁기 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면 있을 거예요. 구로구에서 활동하시는 중요 인물들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면서 마음 약해서 이러면서 보내주자, 이렇게 하셨었는데 어쨌든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 심의위원들은,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도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부결을 결의를 해주셔야 이번에 그러면 의원들도 반성하고 이거를 무리하게 다른 어떤 소수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했던 의원이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사무국도 그런 의원들한테 끌려다녔다가 이게 부결됨으로 인해서 사무국도 그러면 책임을 느끼고 의원들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의원이 주도해서 계획을 만들고 사무국이 서포트하고 사무국은 여행사한테 의존하지 않고, 저는 분명히 2019년에 개선안 얘기할 때도 방문 기관하고 의회 직원이 직접 접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행사한테 의존하지 않고. 저는 지금 공무원들의 수준이 충분히 구글 번역기 돌려서 담당 기관의 연락처 담당자 찾아서 메일 보내고 여행사에 의존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개선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잘못된 점들이 있다면 단순히 개선되길 바란다, 라는 개선안으로 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결 의견을 내주셔야 앞으로 진정으로 구로구의회의 해외 공무출장이 변경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한테도 냉정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지원팀장 박OO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OO위원

팀장님 얘기는 이제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정책지원팀장 박OO

위원님, 이 심사를 받을 때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송OO위원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는 제 의견입니다.

○정책지원팀장 박OO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제가 추가……

○위원장 안OO

충분하게 말씀을 한번 하시고 끝을 내겠습니다.

○정책지원팀장 박OO

저는 위원님께 반박을 하자는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 이해도 좀 하고 제가 부탁도 드리려고 발언을 한 거고요. 아까 얘기하신 1번 주민과 함께 하는 해외 비교시찰 성과보고회 위원님 의도 압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다 바꾸면 좋지만 저희도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본회의에서 성과보고회를 하겠다고 이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걸 좀 긍정적으로 봐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출장자 선정 문제는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은 효율성도 되게 중요합니다. 출장사는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저희 행정도 공무원이 해도 할 수 있지만 더 잘하는 민간이 있으면 민간하고 협업을 하는 추세예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민간 위탁도 많이 하고 있고요. 출장사도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출장사하고 협업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무슨 의도를 갖고 이렇게 너무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안 봐주셨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송OO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잘못 드린 부분이 있나 보네요. 제 기억에 착오가 있었나 본데 제가 요구했던 거는 의원이 접촉해야 된다, 라는 게 정확한 기억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의원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니깐 자기가 기관을 섭외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OO

아까 위원장으로서 최악의 경우 투표를 하는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면서 그거에 대한 뜻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뜻은 무슨 얘기냐 하면 될 수 있으면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일곱 분의 의견이 충분히 합의가 되어 가지고 의사를 결정했으면 하는 뜻이었지, 뭐 어떤 개개인의 의사를 무시한다든가 그런 뜻으로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다른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OO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개선 의견이 반드시 지금 포함돼서 남겨져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4개로 정리되었던 개선 의견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추가해서 좀 더 개선 의견으로 포함이 되어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것. 의원이 주도해서, 그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의원이 주도해서 출장계획서를 작성하는 거. 그다음에 이것이 반드시 한 곳으로 정해서 모든 의원이 관광 느낌으로 다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의원 개개인이 필요한 해외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 여러 개의 출장계획서가 나올 수 있고요. 이번처럼 서로 가고 싶은 곳이 달라서 다수 의견이 나온 곳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방문이 있다면 모두 의원이 다 각각의 곳으로 갈 수 있어야죠. 그걸 지원할 수 있어야죠. 그다음에 동행 직원 줄이기, 만약에 의원이 개별로 가는 방식이 된다면 동행 이 부분도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영상 송출로 하신다고 하셨던 성과보고회, 주민과 함께하는 성과보고회 같은 경우는 주민 협치의 관점에서, 거버넌스의 그 관점에서 반드시 영상 송출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함께 하는 성과보고회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한다. 그리고 여행사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진행한다. 이 부분까지 좀 개선 의견해서, 여행사 같은 부분은 아예 지금 조례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앞으로 고민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OO

조례를 변경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다만 그것은 의견을 제시를 해가지고 구의회에서 조례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지 지금 여기에서는 저희가 조례를 변경하자, 안 하자 이런 얘기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송OO위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남기자는 그런……

○위원장 안OO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여기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런데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개선을 좀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면 투표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이OO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어서 안타깝고요. 의원 대표로 참석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참 참담한 심정도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주도하에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몇몇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저도 박OO 팀장님한테도 항상 지시하는 게 규정에 맞게끔 최대한 적용을 하라고 제가 요구도 하고 해서 개선 의지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8대 2019년도에 다녀오면서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한 출장계획서 의원이 직접 작성하는 부분하고 제가 알기로는 성과보고회를 직접 나와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들이 최대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개선할 부분이 관광성이 아닌 정말로 실질적으로 의원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무 해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앞으로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이 저랑 의논은 많이 했지만 결국은 사무국 직원들 주도하에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오늘 참석 안 했는데 차후에는, 연수를 다녀온 후에는 성과보고회를 전체가 되지 않으면 다수 의원들이 참석하셔서 성과보고회를 가지는 것을 지금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하도록 개선할 의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송OO위원

운영위원장님께 감사드리지만 오히려 운영위원장님은 이런 일들을 계기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적합할 것 같은데요.

○운영위원장 이OO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전체 조례를 지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개정하고 해서 최대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무 해외 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OO

운영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처럼 이렇게 양분화가 심화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라면 다음부터는 두 군데로 갈 수도 있고 아까 우리 황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개인으로도 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도 한 번쯤은 꼭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이렇게 양분화가 됐을 때는 양쪽으로 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른 또 의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시면.

○황OO위원

지금 계속해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정작 가지 않으시는 운영위원장님과 그리고 여기 사무국의 팀장님께서 계속해서 여기에서 고생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굉장히 계속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정작 당사자들은 이 자리에 없는데 우리만 이렇게, 굉장히 조금 슬픈 마음이 여전히 들고요. 그래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이랑 슬프다, 라는 말씀 같이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조례 말씀 주셨던 거 '주민들 눈높이에 맞게'라는 말들 많이 하지만 구체적으로 아까 여행사 부분은 반드시 다른 지자체 조례와 비교해서도, 그리고 특히 여행사를 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의원이 직접 주도해서 본인이 뭐가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가야지 여행사가 "이쪽으로 가시면 이런 것을 관점을 넓히실 수 있습니다." 창 의, 우리 창의력이 지난주 회의에서 나왔거든요. "창의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의원이 주도해서 본인이 일하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비교해서 보고 싶고 그러면 그걸 본인이 계획서 쓰고 진행할 수 있도록 여행사 부분을 반드시 빼주십시오, 이것은 감사하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의견으로 전달을 드리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로 드리면은 저는 어쨌든 지금 깔끔하

게 정리를 해 주셔서 2019년 심사 때 개선 의견 이 네 가지 중에 지금 가능한 것이 두 가지 앞으로 다녀오셔서 가능한 것이 두 가지. 그런데 지금 가능한 두 가지가 이미 개선이 안 되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가, 라는 고민이 들어서 저는 일단은 지금 표결에서 좋은 의견을 드릴 수 없을 것 같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OO

표결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개인의 생각이니까 여기에서는 밝히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여쭙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기준표 배부)

○김OO위원

혹시 질문해도 될까요? 심사표 기준에 "예, 아니오"를 쓰는 란이 18개가 있는데 "예, 아니오"가 숫자가 이렇게 돼야 적합·부적합이 되는 것인가요?

○정책지원팀장 박OO

그건 아니고요.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본인 체크해 보시고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김OO위원

알겠습니다.

○송OO위원

지금 사실 심의위원들이 다 표시하기에는 어려운 질문 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감염병 발생 여부 확인 못했잖아요.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사항인데 예를 들면, 그래서 그냥 심의위원들이 표시할 수 있는 부분들 표시하고 공무국외 출장 적정 여부만 표시해서, 적합·부적합 표시해서 제출을 하시는 게 어떨까.

○정책지원팀장 박OO

네, 그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송OO위원

전에도 사실은 이렇게 표결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정책지원팀장 박OO

저도 회의록 보니까 표결한 적은 없더라고요.

○송00위원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조건부 승인을 하자, 라고 결의를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표결과 관련해서 규정 좀 확인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7명 전원이 참석한 회의인데, 간사님이신가요? 그러면 어쨌든 과반수 이상 참석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표결을 했을 때 결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정책지원팀장 박00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송00위원

7명의 3분의 2 이상이면 몇 명 이상 찬성해야 됩니까?

○정책지원팀장 박00

다섯 분입니다.

○송00위원

5명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5명이 찬성하지 않으면 이번 공무출장 계획은 부결되는 게 맞는 거죠?

○정책지원팀장 박00

맞습니다.

○위원장 안00

안 끝나셨습니까? 아직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집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심사기준표 회수 및 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적합 5표, 부적합 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의 또 하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가결되었다고 해서 개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부터 바뀌어 가지고 구의회하고 구청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는 바람에 이제는 사무국에 계시는 분들도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아니라 사무국 내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이제는 전적으로 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려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꼭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책지원팀장 박OO

네, 알겠습니다.

○송OO위원

적합이 5명이라고요, 그래요? 위원장님 제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어차피 다 기명으로 표시한 거 아닙니까?

○정책지원팀장 박OO

아니 이름 나오면 안 되는……

○위원장 안OO

아니 투표라는 것은, 다만 여기를 접고 이쪽만.

○송OO위원

아니 어차피 저희가 무기명 투표를 한 게 아니고 기명 투표했는데.

○위원장 안OO

이 상태는 무기명이나 마찬가지였죠.

○정책지원팀장 박OO

이게 개별, 원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이름을 공개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OO

다만 여기를 안 보여드리는 걸로 하는 것이고 다만, 5장입니다.

○송OO위원

결례가 안 된다면 제가 잠깐 그러면 이름을 가린 상태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OO

이것으로 2023년도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준비된 그 의결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는 내부 심사용으로 자리에 놔두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지원팀장 박OO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개선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송OO위원

의견이 전혀 지금 기재가 안 돼 있는데요. 아니 의견과 결과는 의견이 지금 위원회 심의 위원들이 낸 의견 여기 정리를 한 다음에 사인을 받

아야지, 이걸 지금 공란으로 해놓고 나서 사인을 받는 건 진짜 너무 형식적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책지원팀장 박OO

거기 의견은 조건부 합의했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해놓은 거고요.

○송OO위원

의견이라고 했으면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의견들을 황 위원님 의견도 얘기했고 저도……

○정책지원팀장 박OO

사실 저 양식은 지난해 조건부 합의할 때 양식이고요. 의결은 했으니까 저희가 의결서 받는 건데.

○송OO위원

반영되지 보고 저는 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OO

그러면 그 부분은 다음에 부위원장님은 직접 보시고 사인을 하시겠습니까?

○송OO위원

제가 함부로 아무 데나 사인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사인이나 어쨌든 의견에 대한 무게를 저는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 어쨌든 심의위원회 저는 두 번째 참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몇 년째 관심 갖고 개선을 요구했던 시민단체의 공동대표로서는 오늘 결과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유감이고 오늘도 역사에 남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있었던 일도 또 다음에 회자가 될 것이고 위원장님께서서는 어쨌든 위원장님 개인이 뭘 어떻게 잘 하겠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팀장님 생각처럼 서서히 바뀌가겠다, 불가능하죠. 어쨌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OO

그거는 부위원장님이 참여하다 보니깐 마음속에 그게 있어가지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변화라는 것은 갑자기 변화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변화가 가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37분 산회)